

지구가 둥근 이유

하기정 (2008년 제4회 5·18문학상 수상작)

안골 사거리 우회전 공터 지나 높은 오르막 길을
유모차 한 대 오신다
팔월의 햇살 아래 불 지핀 아궁이 속 같은 열기가 아스팔트 위를 어룡거리는데
유모차엔 아기 대신 노끈으로 친친 동여 맨 삼양라면 박스 새우깡 박스 옥시크린 박스
내용물 없는 빈 상자가 뼈죽 튀어 나왔다
노파가 유모차에 걸어 놓은 간판처럼

아슬아슬 고갯길이 한참이다
‘지구는 둥글지, 자꾸 걸어 나가면’
지구가 둥근 이유는 멀리 수평선 돛단배를 보면 알지
돛단배는 돛부터 보여주다 차츰 배 전체가 드러나지

노파의 등과 아스팔트 길이 쌍곡선이다
저 속도로 가다보면 빈 종이상자의 무게만큼
라면 한 박스라도 바꿀 수 있을까
나아간다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
빈 상자 묶음은 들쭉날쭉, 뒤틀린 판게아처럼
노파의 손은 밀려난 대륙의 끝자락을 잡고 있다

지구는 둥글지
굴러도 항상 그 자라 한 바퀴 돌아 나와도 제자리 걸음
바다에 나가 돛의 머리를 보지 않아도 알지, 지구가 둥근 이유를

대륙과 대륙이 멀다
닿을 내릴 수 없다

늦여름

하기정 (2008년 제4회 5·18문학상 수상작)

대낮, 아파트 화단 풀 깎는 기계소리 요란하다
회전 칼날에 채썰어진 풀이 밀동만 남긴 채 흩어져 드러눕는다
미장원 바닥에 널브러진 섬뜩한 머리카락처럼 눕는다
이 세상에서 잘려나간 것들은 다시 꿈꾸지 않는다
풀 냄새 고동친다
늦털매미 꽃사과 나무 위에서 만가를 부른다
씨앗 맺어 떨어지기 전에 풀을 자르는 일이란
자궁을 들어내는 일
궁형을 당하는 일
잘려진 풀들에겐 유산의 기억이 없다
모두가 만가다
쓰러진 풀과
몇 안 남은 매미와
팔 월 한낮 여름의 行狀記행장기
마른 하늘에 쓴다

저녁 여섯 시 삼십 분

하기정 (2008년 제4회 5·18문학상 수상작)

*

지구가 서녘 하늘을 발강게 자전할 무렵
거대한 톱니가 서로 맞물려 돌고 있을 때
개미 한 마리
하루 일용할 목숨을 짊어지고 간다
딸가닥 딸가닥
절지節肢의 손과 발이 부딪치는 소리
몸의 전부인,

자전하는 소리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
늦은 봄날 여섯 시 삼십 분
절지切趾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
지상에서 맨 먼저 달을 머리에 이고
밥그릇 깊은 바닥을
달그락 달그락 굽는 소리
달의 무게가
하루의 전부인,

이런 사마귀 같은

하기정 (2008년 제4회 5·18문학상 수상작)

땀뿜던 사마귀가 구 층 베란다까지 올라온 건
나에게 있어 외계인이 지구에 잘못 착륙한 것이나 다름없었다
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놈 레이더 망에 포착된 것일까
어떤 것이든 간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의 공격 대상
나는 나무젓가락에 멸치를 매달아 움직여 본다
별미야, 네가 언제 바닷것을 맛 보았겠어
그 놈은 공격한다 그 놈의 섬모가 죄다 섰다
나도 머리털을 곤두세운다 모공도 바짝 긴장하여 닫혀 있다
육박전에 들어간 두 마리의 동물
그 녀석은 알지 못 한다 꼭두각시처럼 멸치를 움직이는 거인이
뒤에 있다는 사실을
그 놈의 모든 공격 상대자는 죽은 마른 멸치다
그 놈이 전갈처럼 무서운 독이 있어도
나는 안심이다 그 놈의 적수는 마른 멸치이므로
나는 그 놈이 지쳐 죽을 때까지 게임만 즐기면 된다

아, 기분 좋은 속임수

못

하기정 (2008년 제4회 5·18문학상 수상작)

무릎까지 말아올린 푸른 작업복이 걸린 자리
새 못을 박자 못은 이리저리 뻑뻑 몸을 비틀기만 한다
제 각도를 못 맞추고 꽃히지 않는다
뭔가를 걸 수 있는 각도란 벽으로부터 최소한의 직각은 이루어야 마땅하지 않는가
손 끝을 긴장하며 헐거워진 자리 메워보려 하지만
못은 망치를 허락하지 않고 어긋나버린다
힘줄 서는 팽팽한 손가락과 제 각도를 정하지 못한 망치 사이
못은 방바닥만 바라보다 뻑 토라져버린다거나
아예 꼬리를 내릴 줄 모른다
콘크리트 못은 시멘트 가루만 날린 채 방바닥에 탕그르르
바람 한 점도 걸어주지 않는 못
못 쓴다
못 쓰겠다

감자가 감자인 이유

하기정 (2008년 제4회 5·18문학상 수상작)

감자나 먹을 일은 아니다
감자는 제 온 몸이 혁명인 것을
땅 속 줄기 끝 부풀어 오른 독이 있는 줄 감자꽃으로만은 몰랐다
무릇, 감자꽃은 허튼 맹세에 지나지 않았다
기실은 씨눈 하나로 어두운 지하에 뿌리를 내리고
간절한 생각 하나, 꼭 이루고 말아야 할 푸른 독같은 것을
꿈틀거리며 키워왔다는 사실
줄기를 덮고 있는 흙은 묻혀 있는 감자와 교란의 경계일 뿐이다
꽃 진 자리 열매 없는,
숨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독한 일인가를
오 월 감자꽃을 보고 알았다

어느 날, 햇빛에 드러나 푸른 땅이 든 감자는
혀를 말려드는 독한 기운이 오 월의 함성이라는 사실
장마철 자루에서 뿜어 나오는 감자 썩은 기체들의
아우성은 숨을 외치는 소리임을
하여, 숨을 어기는 일이 얼마나 혹독한 가를
감자나 먹고 있을 때는 몰랐다